

한국인의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적 고찰*

김혜숙¹ · 김영진¹ · 김완석¹ · 나은영² · 이종한³ · 조성을⁴ · 최진호⁵

¹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²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³대구대학교 심리학과

⁴아주대학교 사학과 · ⁵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본 조사연구에서는 가족, 지역 공동생활 및 친목·취미·사회봉사·종교모임활동의 만족도와 중요도 및 그 기능을 비교 검토해 보며, 또한 이러한 공동생활 및 활동에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의 전국의 남녀 1,000명이었다. 그 결과, 가족만족도는 대체로 단체 및 모임활동에의 만족도와 비슷하게 '만족스러운' 정도로 보고되었다. 여러 공동생활과 활동들을 그 중요도의 순서대로 보면, 친척 등의 혈연관계, 친목모임 친구, 이웃, 동창 그리고 종교모임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동생활의 기능적 측면을 분석해 본 결과, 친족은 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등 어려울 때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다 도구적 의미와 기능에서 중요해지고, 반면 친구는 여행을 같이 하거나 울적한 기분을 느낄 때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여유로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등의 보다 정서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공동생활과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혹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특히 가족과 친인척관계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 생활만족도, 집단성원으로서의 일반적 자부심 그리고 종교집단내의 만족도가 또한 삶의 만족도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물질적 향상이나 경제적 발전만으로 달성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객관적 환경(즉, 경제, 인구, 환경, 안전 등)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의 안정성이 필요 요건이 된다(홍숙기, 1994).

이렇게 볼 때 집단주의적인 의식과 가치관(이종한, 1992; 김혜숙, 1994; 차재호·정지원, 1993; Hofstead, 1980, 1983;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a, 1988)을 지녀 왔던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풍요롭고 안정된 공동생활과 활동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생활만족감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핵심적 요인이 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혹은 선택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집단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속 성원으로서의 활동에 얼마나 열심인가,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가, 집단 성원들과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얼마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가 등의 공동체 의식과 활동이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실상 Triandis(Triandis et al., 1988; Triandis, 1989) 등은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더욱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생활이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과 의미는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는 구분되어 고찰될 필요가 있다. 즉, 한 개인에게는 매우 만족감을 주는 공동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공동생활에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 가족, 이웃, 지역공동체 등의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다양한 자발적 집단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가치와 태도는 현대에 들어 서구 사회에서와 달리 혈연, 지연 및 학연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이고 비자발적 집단의 형성과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선업, 1993; 김진균, 1983; 이종한, 1992, 1994; 한상복, 1980), 이러한 연줄망이 현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된 사회적 기제가 되고 있다. 산업사회에 들어 서구에서는 전통적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개인들은 약하지만 보다 다양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집단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의 친족체계는 쇠퇴되고 있지만 여전히 혈연관계가 핵심적 관계로 남아 있고 한편, 학연이나 지연 등의 또다른 강하고 폐쇄적인 연줄망이 이웃과 친인척관계를 대체하고 있다(김선업, 1992, 1993). 이러한 연줄망들은 그러나 그 폐쇄성과 비자발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 갈등, 집단이기주의 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보다 크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학벌이나 “일류학교”에의 입학이 특히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일류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의 사회 권력층과의 연줄과 든든한 “배경”이 생김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모임활동에 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종한(1992)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공동생활과 집단생활 및 활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비교 고찰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시거주 한국인에 있어 중요한 집단은 그 중요성의 순서대로 직계가족, 친구, 직장동료, 가까운 친척,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먼 친척 그리고 종교집단들이었다. 또한 미국인들이 참여하는 집단의 94%가 자발적 집단이었던 데 반해, 한국인이 소속한 집단의 55%만이 자발적 집단이었다.

나온영·김혜숙(1997)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가족공동생활의 기본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친척의 범위는 사촌정도까지이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도시거주민보다 읍면지역거주민이,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나 별거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더욱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는 높아지고 반면 친인척관계만족도는 낮아진다. 이종한·김혜숙(1997)은 지역 공동생활에 대한 조사 보고에서 이웃모임에의 참여도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읍면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집을 임대하여 살면서 앞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혜숙·최진호(1997)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임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임활동중에

는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에의 참여가 제일 높고 사회봉사모임에의 참여가 제일 저조하였다. 종교모임을 제외한 친목·취미·사회봉사모임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여러 모임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데, 취미모임에는 30대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친목모임이나 취미모임은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지만, 친목모임에는 특히 읍면지역 거주민이며 농/임/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며 한편 취미모임에는 전문직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요하게 간주하는 공동생활 및 모임활동들에 대해 그 중요도와 만족도, 성원친밀도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모임활동의 주요 기능에 대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집단으로는 가족, 지역 및 단체와 모임활동을 포함시켰고 단체 및 모임 활동에는 친목모임, 취미모임, 사회봉사모임 및 종교모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즉, 주관적 안녕감)가 이러한 여러 공동활동 및 생활에의 만족도와 가지는 관계가 어떠한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전국적 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방 법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1)인구학적 자료 (2)친목, 취미, 사회봉사 및 종교집단의 단체 및 모임활동에 관한 질문들(만족도, 친밀도, 참여 빈도 등) (3)가족에 대한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 (4)삶의 만족도 (5)각 공동생활의 중요도 및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 등이다. 아래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1) 인구학적 자료

1. 거주지역
2. 지역크기(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 성별
4. 나이
5. 직업
6. 학력
7. 월수입
8. 가구 월수입
9. 결혼상태
10. 자녀구성
11. 종교

2) 단체와 모임활동에 관한 질문

1.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의 가입수
2.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의 모임빈도
3.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의 참여빈도(5점 척도상의 평가 점수로 1 =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5 = “대부분 참여한다”임)
4.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서의 지위
5.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의 회원수
6.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의 성격(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성격)
7.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의 참여기간
8.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 대한 만족도(5점척도상의 평가 점수로 ‘매우 만족한다’가 5점이고 ‘매우 불만족한다’가 1점임)
9.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에서 성원 친밀도(5점척도

상의 평가 점수로 '매우 친하다'가 5점이고 '전혀 친하지 않다'가 1점임)

10. 집단자아존중척도(7점척도 점수로 점수가 클수록 집단자아존중이 높음) 집단자아존중 척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네개의 하위 척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멤버십 하위척도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 그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성원이라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사회적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는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며 자랑스러워 하는지를 측정한다. 공적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는 타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가족·지역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동생활의 중요도 및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

1.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 만족도(7점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만족하다는 평가임)
2. 지역공동체 의식척도(0-18의 점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음.)
3. 지역 만족도(지역 공동체 의식 척도중 관련 3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산점수(0-3점)를 5점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4. 현재의 삶의 만족도(7점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삶에 만족한다는 평가임)-주관적 안녕감
5. 앞으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7점척도

로 점수가 클수록 만족한 것임)

6.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모임(친척, 이웃, 친목모임, 동창, 고향사람, 취미단체, 사회운동·봉사단체, 종교단체)
7.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사람의 순서(친척, 친구, 이웃, 동창, 고향사람, 직장사람, 종교모임 친구)
8.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사람의 순서(친척, 친구, 이웃, 동창, 고향사람, 직장사람, 종교 모임 친구)

조사대상자

이 조사는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남자 506명, 여자 494명)에 대한 전국조사로 표본추출 방법은 다단계 층화 군집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집 방법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계1: 성인 남녀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 지역 별로 표본수 결정. 단계2: 각 지역내에서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표본수를 결정하고 기타 시도지역의 경우 구내에서 통/반을 무선으로 표집. 단계3: 광역시의 경우 구내에서 통/반을 무선표집, 기타 시, 군의 경우 통/반 또는 리/마을을 무선표집함. 총 100개의 sampling spot을 선정. 단계4: 각 sampling spot(표집된 통/반, 리/마을)에서 10개 가구를 선정하고 그 다음 각 가구내에서 1개 표본을 추출함.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수입별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조사는 1996년 2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각 면접인이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각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지역별 분포		사례수	백분율	성별 분포		사례수	백분율
서울		258	25.8	남자		506	50.6
부산		89	8.9	여자		494	49.4
대구		54	5.4	계		1,000	100.0
광주		25	2.5	연령별 분포			
인천		43	4.3	20대		336	33.6
대전		25	2.5	30대		295	29.5
경기		147	14.7	40대		187	18.7
강원		35	3.5	50-60대		182	18.2
충북		32	3.2	계		1,000	100.0
충남		43	4.3	개인소득수준별 분포			
경북		64	6.4	없음		308	30.8
경남		84	8.4	50만원미만		53	5.3
전북		45	4.5	50-150만원		401	40.1
전남		56	5.6	150-250만원		167	16.7
계		1,000	100.0	250만원이상		54	5.4
학력별 분포				모름,무응답		17	1.7
무학,국중퇴		25	2.5	계		1,000	100.0
국졸,중중퇴		70	7.0	성별·직업별 분포			
중졸,고중퇴		106	10.6	남성 유직		480	48.0
고졸,대중퇴		505	50.5	무직		26	2.6
전문대졸이상		254	25.4	여성 유직		234	23.4
모름,무응답		40	4.0	무직		7	0.7
계		1,000	100.0	주부		253	25.3
				계		1,000	100.0

표 2. 가족과 친족 및 각 집단에 대한 만족도 및 각 집단에 대한 가입수, 참여빈도, 친밀도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만족도	가입수	참여빈도	친밀도
가족	3.90(1.18, 997) ¹			
친족	3.52(1.24, 994) ²			
지역	3.60(1.01, 995) ³			
친목	3.91(0.73, 752)	1.49(1.08, 752)	4.01(1.13, 752)	4.16(0.62, 752)
취미	4.01(0.71, 178)	0.21(0.49, 178)	3.92(1.15, 178)	4.20(0.59, 177)
사회봉사	3.79(0.73, 689)	0.08(0.73, 68)	4.17(0.97, 68)	3.91(0.75, 68)
종교	4.05(0.77, 227)	0.25(0.25, 234)	3.82(1.22, 226)	4.10(0.73, 227)

¹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복수로 가입한 경우, 각 모임에 대한 측정치를 평균하여 그 개인의 점수로 삼았음.

² 원래의 7점척도 점수를 5점척도로 환산함. 즉, 각 개인의 원래의 점수 x 5/7을 각 개인의 환산 점수로 삼음.

³ 지역만족도 점수는 지역공동체의식 척도중 관련 3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산점수(0-3점)를 5점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즉, 각 개인의 지역만족도 점수 x 5/3을 하여 각 개인의 환산된 지역만족도 점수로 삼음.

결과 및 논의

공동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및 상대적 중요성

표 2에 각 공동생활에의 만족도, 가입모임수, 참

여빈도 및 성원친밀도를 비교 정리하였다. 이에서 보면 가족공동생활에의 만족도 평균은 친목모임·취미모임·종교모임에의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여러 공동활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는 '만족하는 편이다'로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봉사모임의 만족도나 친족모임의 만족도는 다른 모임의 만족도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가족이나 친족 공동생활이 우리의 생활에서 보다 중요하고 또한 생활에서 차지하는 시간적·공간적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다른 모임에의 그것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러 공동생활 중 보다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봉사모임에의 가입정도나 만족도, 그리고 성원친밀도가 낮아,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이러한 여러 공동생활 중 어떠한 집단생활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모임을 친척, 이웃, 친목모임, 동창, 고향사람, 취미모임,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중에서 순서대로 셋을 고르게 한 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서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친척, 친목모임, 이웃, 동창 그리고 종교집단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어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종한(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동창회나 취미집단에 대한 것보다도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종한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중요한 집단은 그 중요도의 순서대로 직계가족, 친구, 직장동료, 가까운 친척,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등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포함시킨 표본의 수(김선업 319명; 이종한 한국 198명, 미국 184명)가 본 연구만큼 크지 않

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표본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존의 두 연구들은 도시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읍면지역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이 연구들에 포함시킨 비교집단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났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계가족, 친구나 직장동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친척이 동창이나 이웃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된 것은 그러나 방법적인 문제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계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피면접자들은 '친척'의 의미를 직계가족을 포함시켜 생각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느 해석이 옳은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친목모임의 중요성이 친척의 중요성 다음으로 높게 지각되었는데, 피조사자들은 친목모임에 친구까지 포함시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친구와 동창을 합한 '친구'모임이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친척이나 이웃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목모임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적되고 있고 종교모임도 다른 모임에 비해 비교적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다. 동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학연의 중요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동생활은 친척 등의 혈연관계이고 그 다음으로 친구, 이웃, 동창, 그리고 종교집단의 순서대로 그 중요도가 지각되었다. 특히, 친척 등의 혈연관계의 중요도는 그외의 집단이나

표 3.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임

1순위					
	친척(61.4%)	친목(11.2%)	이웃(9.0%)	동창(8.4%)	
1+2+3순위					
	친척(88.2%)	친목(54.5%)	이웃(51.4%)	동창(48.0%)	종교단체(16.8%)

사람의 중요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적이 되어, 우리 나라 사람들의 혈연중시주의가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비교대상 집단들을 포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집단의 중요성의 근원과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중요도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들을 포함시킨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민들에 대한 조사 연구들과는 달리, 이웃의 중요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 및 활동의 기능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서 어떤 관계의 사람(친척, 친구, 이웃, 동창, 고향사람, 직장사람, 종교모임 친구)을 먼저 찾을 것인가를 질문하여 서로 다른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친근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럼으로써 가족이나 동창 혹은 친구나 모임 친구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부부, 함께 사는 부모 및 형제 등 핵가족은 선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먼저, 경제적 도움 즉, '지금 당장 현금 1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43.2%)을 찾았으며, 다음으로 친구(34.2%)와 이웃(14.1%)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50.4%), 친구(28.3%), 이웃(12.1%) 등의 순서로 도움을 청하였다. 특히 '부친상'을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60.8%)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24.2%) 이웃(7.2%)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적인 흥사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척의 도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거나 보다 정서적인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친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여행(1박 2일)의 동반자'를 찾을 때 75.2%의 응답자는 친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였으며, 1/10미만의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8.5%)과 이웃(7.3%)을 여행동반자로 생각하였다. '울적한 기분'일 때도 친구(68.2%)를 우선적으로 찾았으며 이웃(10.5%)과 가까운 친척(9.0%)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랜만에 여유시간'이 생겼을 때도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친구(59.6%)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였고, 그 외에 가까운 친척(15.2%)과 이웃(8.4%) 그리고 동창(7.3%)의 순서로 찾았다. '자신의 생일파티에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으로 제일 먼저 친구를 든 사람들이 56.6%이었고,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21.1%)과 이웃(12.9%)을 초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행이나 생일파티와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긍정적 상황과 기분이 우울한 것과 같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학교 동창생, 고향 사람 등 친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업(1993)이 지적인 바대로 우리 나라 친족의 의미와 기능이 점점 도구적으로 되어 가고 반면 친구나 동창이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제공하는 정의적인 기능을 점점 더 담당하게 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여러 공동생활이나 활동이 담당하는 구체적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주관적 안녕감)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의 평균치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점 척도 상에서 4.68로 '그저 그렇다'와 '약간 만족한다'의

표 4. 성, 학력, 연령, 직업, 가구수입, 지역크기별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 삶에 대한 기대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구 분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 삶에 대한 기대
성 별	남성	4.69(1.47, 506)	5.53(1.04, 504)
	여성	4.67(1.39, 492)	5.44(0.92, 486)
학 력	무학+국중퇴	4.40(1.58, 25) ¹	5.22(0.95, 23) ²
	국졸+중중퇴	4.30(1.47, 70)	4.94(0.92, 69)
	중졸+고중퇴	4.53(1.47, 106)	5.13(1.02, 105)
	고졸+대중퇴	4.70(1.41, 504)	5.55(0.96, 501)
	전문대졸 이상	4.79(1.40, 253)	5.62(0.94, 252)
연 령	20대	4.63(1.47, 335)	5.69(0.97, 331) ³
	30대	4.66(1.47, 294)	5.57(0.97, 295)
	40대	4.68(1.40, 187)	5.39(0.88, 185)
	50-60대	4.81(1.32, 182)	5.06(1.00, 179)
직 업	경영/관리/자유/전문직	4.81(1.41, 37)	5.59(0.83, 37) ⁴
	사무관련직	4.75(1.43, 170)	5.69(0.90, 170)
	자영업	4.60(1.45, 207)	5.38(1.01, 207)
	판매/서비스/영업직	4.60(1.55, 131)	5.49(1.05, 131)
	농/임/수산업	4.90(1.24, 30)	5.07(0.92, 29)
	생산직,운수장비운전	4.31(1.52, 61)	5.38(1.11, 60)
	주부	4.77(1.31, 253)	5.43(0.87, 248)
	학생	4.76(1.47, 74)	5.78(1.04, 74)
	무직	4.60(1.54, 35)	5.21(1.27, 34)
가구수입	100만원 미만	4.60(1.59, 128) ⁵	5.32(1.03, 124)
	100-200만원 미만	4.57(1.42, 442)	5.44(0.97, 441)
	200-300만원 미만	4.80(1.36, 292)	5.56(0.94, 291)
	300만원 이상	5.03(1.40, 108)	5.58(1.11, 106)
거주지역	대도시	4.69(1.45, 492)	5.46(0.96, 490)
	중소도시	4.55(1.48, 261)	5.48(1.00, 259)
	읍면단위	4.80(1.32, 245)	5.54(1.01, 241)

¹ $F(4, 945) = 2.19, p < .07$

² $F(4, 945) = 11.31, p < .01$

³ $F(3, 986) = 18.13, p < .01$

⁴ $F(8, 981) = 3.40, p < .01$

⁵ $F(3, 966) = 3.71, p < .05$

중간 정도로 그다지 높지 못하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은 이보다 나아서 평균 5.48로 ‘약간 좋아질 것이다’와 ‘좋아질 것이다’와의 중간 정도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연구(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3)에서 나타난 결과(즉, 삶의 질 점수 평균 57/100점)와 비슷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는 나아졌다 하더라도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 준다.

각 인구학적 변인별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변량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력별 평균

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도 학력별 효과가 유의미도 수준에 근접했고, $F(4, 953) = 2.19, p < .07$,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학력에 따라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 945) = 11.310, p < .01$. 즉,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학력과 정비례해서 크게 증가했다. 무학·국중퇴의 경우 기대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은 사례수가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당연히

게도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직업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의 정도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달리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과 사무관련직이 가장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경영·관리·자유·전문직과 판매·서비스·영업직, 그리고 주부가 중간 정도의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생산직이나 무직, 농·임·수산업 계통이 가장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주관적 안녕감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학생과 사무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서 높게 나타난다.

공동생활 및 활동과 삶의 만족도

표 5에 각 공동생활의 만족도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의 상관계수를 요약·정리하였다. 이에서 나타나 있는

표 5. 각 집단 만족도,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및 각 하위척도 점수와 삶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의 상관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가족만족도	.33**	.19**
친인척만족도	.31**	.09**
지역생활만족도	.22**	-.00
친목집단만족도	.16**	.07
취미집단만족도	-.0045	.06
사회봉사집단만족도	-.03	.10
종교집단만족도	.22**	.10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23**	.22**
공적	.15**	.14**
사적	.24**	.17**
정체감	.17**	.17**
멤버십	.57**	.28**

* $p < .05$ ** $p < .01$

바와 같이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가족만족도였고 친인척 만족도도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모임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은 이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종교집단에서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가족과 친인척간의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임을 말해 주며, 또한 가족관계나 종교모임 등이 담당하는 정의적 기능과 사회지지적인 기능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됨을 지적해 준다.

표 5에는 또한 집단자아존중점수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이 나타나 있는데, 집단자아존중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졌다. 즉,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것인데, 특히 집단인으로서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와 집단성원으로 인정받고 가치로운 성원이냐에 대한 지각(즉,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이 가치롭고 열성적인 집단 성원이라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집단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참여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의 만족도보다는 공동생활의 만족도와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족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다른 집단활동과의 상관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현재의 공동생활 및 활동보다는 나이라든지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자아존중 점수와는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삶에 대한 만족 관련 변수들의 상관계수 행렬

	삶만족	미래삶 기대	가족 만족	지역 만족	친인척 만족	친목모임 만족	집단자아 존중	지역 공동체의식	가구 수입	연령	학력	지역 크기
삶만족도	1.00											
미래삶기대	.26**	1.00										
가족만족	.28**	.19**	1.00									
친인척만족	.29**	.06	.51**	1.00								
지역만족	.19**	-.02	.13**	.17**	1.00							
친목모임만족	.14**	.06	.16**	.16**	.09	1.00						
집단자아존중	.20**	.20**	.09	.13**	.08	.10*	1.00					
지역공동체의식	.12*	-.06	.10*	.17**	.61**	.10*	.09	1.00				
가구수입	.10	.10*	.02	-.03	.02	-.06	.07	-.04	1.00			
연령	.05	-.26**	-.03	.11*	.27**	.12*	-.04	.39**	-.09	1.00		
학력	.08	.19**	.03	-.08	-.15**	-.09	.14**	-.29**	.31**	-.49**	1.00	
지역크기	-.08	-.06	-.07	-.09	-.17**	-.09	.03	-.20**	.18**	-.07	.19**	1.00

* $p < .05$ ** $p < .01$

표 7. 삶에 대한 만족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2	R^2 증가분	회귀식의 F 치	최종회귀식의 Beta
1	친인척관계만족	.086		63.87	.18
2	미래삶에 대한 기대	.146	.060	58.00	.21
3	지역만족도	.168	.022	45.69	.14
4	집단자아존중감	.180	.012	36.93	.11
5	가족관계 만족	.191	.011	31.77	.12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 문항으로 측정하기는 했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을 공동생활과 활동을 반영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만족, 지역만족, 친목집단에 대한 만족,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등 영역별 만족을 나타내는 변인들과 연령, 학력, 가구수입 등 인구통계적 변인들 그리고 집단 자아존중감과 지역공동체의식 같은 개인차 변수들로 구분해서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역별 만족을 반영하는 변인들과 개인차 변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에 유의미하고 어느 정도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이나 학력, 가구수입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들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연령), 유의하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았다(학력, 가구수입).

표 7은 삶에 대한 만족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준화회귀계수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들만을 회귀식에 들어가도록 한 결과, 가장 먼저 회귀식에 들어간 변인은 친인척관계 만족으로서 R^2 는 .086이었다. 그 다음으로 미래삶에 대한 기대, 지역만족도, 집단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의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이 친인척과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등 매우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변인들 외에도 집단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차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자아존중감 척도는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있는

가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서 특정 집단 예컨대, 가족이나 동호회 같은 집단들에 대한 동일시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은 일종의 집단동일시 경향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성향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성격(즉, 내외향성, 신경증적 특성 등)이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Brief, Butcher, George와 Link, 1993; Costa와 McCrae, 1980)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령, 학력, 가구수입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만으로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중요한 인구통계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는 이런 변인들 보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가까운 사회적 환경 즉, 인간관계와 지역공동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집단이 중요한 정도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 자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집단자아존중의 개인차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우리 나라 사람중 집단에의 동일시나 집단중요성이 보다 큰 사람들이 삶에 대한 높은 만족을 가진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나 교육수준, 나이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집단에의 동일시와 같은 개인 자신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이 또한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 '동네'의 여러 가지 환경과의 상호활동 등 개인과 밀접한 분야의 공동생활이나 활동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공동생활이나 활동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매우 협소하고 비교적 사적인 영역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더 크고 공적인 의미의 공동 활동이 과연 삶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는 본 연구로서는 알 수 없다.

요약 및 논의

가족만족도는 친목, 취미 그리고 종교모임에의 만족도와 비슷한 정도로 '만족하다'고 지각되었다. 여러 공동생활과 활동들을 그 중요도의 순서대로 보면, 친척 등의 혈연관계, 친목모임 친구, 이웃, 동창 그리고 종교모임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동생활의 기능적 측면을 분석해 본 결과, 친족은 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등 어려울 때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다 도구적 의미와 기능에서 중요해지고, 반면 친구는 여행을 같이 하거나 율적인 기분을 느낄 때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여유로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등의 보다 정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공동생활과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혹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특히 가족과 친인척관계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생활만족도, 집단성원으로서의 일반적 자부심 그리고 종교집단에의 만족도가 또한 삶의 만족도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중요하고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는 공동생활은 역시 가족관계이고 한편 친척관계나 이웃 등도 여전히 삶에 있어 중요한 관계로 지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존의 연구(김선업, 1993; 이종한, 1992) 결과에서는 친척이나 이웃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국조사였다는 데에 그러한

차이의 이유를 일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지역공동체의식이 도시지역 거주자들보다 더 높았다. 한편,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친구나 동창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모임활동 중 특히 종교집단과 친목모임에의 참여와 그 만족도, 성원친밀도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높다는 결과는 이러한 모임활동이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정신적 평안이나 사교나 유친육구의 충족과 같은 정의적 기능이 주관적 안녕감을 진작시키는 데 관련됨을 시사해 준다.

여러 공동활동 중 자원봉사 등의 사회봉사모임 활동이 다른 공동생활에 비해 사회발전이나 시민정신의 함양 그리고 타인에의 봉사 등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참여 정도나 만족도, 성원간의 친밀도가 다른 집단 활동에 비해 특히 저조하여 긍정적 집단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도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봉사 집단활동이 다른 개인적인 모임에 비해 사회 전체의 기능과 보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 모임에의 참여 인원이 워낙 적어(67명/1,000명), 이 모임활동의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만족도와 중요성을 높여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공동생활에 대한 참여정도, 만족도 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실태의 측면을 조사하였으나 이러한 공동생활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 구체적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과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각 공동생활의 핵심적 기능과 각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 중 어떠한 측면들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생활 및 활동이 담당하는 정서적 안정·유친 등의 개인적·정의적 기능과 현실적 도움 등의 개인적·도구적 기능, 혹은 사회발전에의 기여나 타인에의 봉사 등의 사회적 기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각 기능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즉,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일문항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이 신뢰롭지 못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공동생활 및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업(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여름), 1-33.
- 김선업(1993).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김혜숙·최진호(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출판중.

- 나은영·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 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출판중.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1993). 한국 사회: 오늘과 내일.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 이종한(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 주의-집단 주의 관점에서의 비교 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종한·김혜숙(1997). 한국인의 지역공동 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출판중.
- 차재호·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 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한상복(1980). 韓國人の 共同體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3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숙기(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남자와 여자의 생활환경과 행복. 서울: 나남출판사.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1993).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osta, P., & McCrae, R.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 Sage.
- Hofstede, G(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XII, 46-74.
- Trina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Koreans' Communal Life and Group Activitie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Hai-Sook Kim¹, Youngjin Kim¹, Wan-Suk Gim¹, Eun-Yeong Na²,
Jonghan Yi³, Sung-Eul Cho⁴ and Jin-Ho Choi⁵**

¹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³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⁴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⁵ Department of Soci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importance, satisfaction with and the functions of the Korean's family life and kinship, community life and the various group activities(i.e., social gatherings, groups for hobbies, social service groups and the religious group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se groups and communal lif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respondents were 1,000 males and females of age of over 20, sampled from the whole populat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eople showed approximately the sam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s that with group activities. It was also found that people considered the kinship as the most important group among these, social gatherings the next, neighbors, alumni and the religious groups, listed by downward order of importance rating score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relatives were considered as the ones who could provide the practical and material help when needed, implying that their main function was instrumental. On the other hand, friends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and helpful as travel partners or when people felt depressed, which showed that the function of friends was mainly that of emotional nature.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relatives were the most co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with life, and satisfaction with the community, collective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religious groups were also 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with life, in their downward order.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